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첫 발 댔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국민의힘·민주당·광주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힘 보태
 안영근 병원장 “에타 통과로 지역 의료 발전 선도하겠다”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오랜 지역 숙원사업인 새병원 건립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안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 8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탈락된 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

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11년간 1조2150억원(국고 3040억원, 자부담 9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2030년까지 전남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3동의 진료 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부속동(2동)의 진료 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과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새병원 건립 요청에 광주시와 여당 및 야당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안영근 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7월과 12월 두 차례 만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마트병원 신축을 통해 호남지역 의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18일에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적극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전남대병원을 찾아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치료의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사업은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면서 “새병원 건립이 신속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국비지원 상황 등을 요청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당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꼭 에타조사를 통과해 단순 병원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폭설로 폭삭’ 포도 재배농가 돕는 뽕

육군 제11공수특전여단 부대원들이 27일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구산리 포도 재배 하우스에서 폭설 피해로 주저앉은 시설물을 해체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4일 사이 담양에서는 최고 25.9cm의 눈이 쌓여 농작 시설·축사 피해 등이 잇따랐다.

“전남 출향민, 고향사랑기부제 잘 모른다”

민주 여론조사…제도 인지 9.0%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더 긍정적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민과 출향 2세대 중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젠디앤디에 의뢰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민과 부모님이 전남 출신인 1335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표본오차 ± 2.28%, 95.0% 신뢰수준)

조사 대상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9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고향에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할 지를 묻는 설문에는 3만원 미만(39.0%)가 가장 많았고, 이어 5~10만원 미만(21.9%), 3~5만원 미만(16.5%), 10~20만원 미만(13.3%), 20~30만원 미만(4.3%) 등의 순이었다.

기부에 참여 요인으로는 답례품보다 세액공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 여부에 답례품 유무가 얼마나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설문에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9.3%(큰 편 38.9%, 매우 큼 10.4%),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7.7%(작은 편 29.2%, 매우 작음 8.5%), 영향이 없다는 13.0%로 부정적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시행을 코앞에 둔 이번 조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모금방법 확대와 제도 홍보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부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아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방법 확대, 제도에 대한 지원 다각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김재환기자

주암댐 가뭄 장기화…‘수력 발전용’ 물까지 끌어 쓴다

주암댐 저수율 예년의 56% 수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용댐인 보성강댐의 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적극 활용하고, 소양강댐을 대체전력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이날 기준 29%에 그치고 있다. 예년의 56%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27일부터 주암댐을 가뭄 단계로 관리해왔지만, 내년 홍수기 전까지 댐 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댐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부는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

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상반기 동안 보성강댐에서 발전에 사용한 물량은 평균 약 4400만㎥에 달해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발생한 발전손실을 보전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상대적으로 여유물량이 있는 소양강댐(한강수계)에서 보성강댐에서 감소한 수력발전량만큼 대체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전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 동절기에 집중적·선제적으로 수력발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보성강댐 물로 용수를 공급하고 소양강댐에서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가뭄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